

野, 양곡법·세월호법 본회의 직회부... 與 '반발'

민주 등 농해수위서 단독 표결처리 野 "정부여당 대안 없이 반대만" 국힘 "거대 야당 입법폭주" 항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함께 세월호참사 특별법 개정안 등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등 5건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의결했다.

농해수위 위원 19명 중 민주당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 야당 위원 12명만 투표에 참여해 표결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직회부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정부와 여당이 대안없이 반대만 계속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

본회의 직회부 안건은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농산물에 가격안정제를 도입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한 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간사와 신정훈·주철현 의원 등이 18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농업민생 4법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처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

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농어업외의소법안 등 농업민생 4법, 그리고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양곡법 개정안은 미곡의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미곡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

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표결된 법안들은 민주당 주도로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여당이 반대하면서 법사위에 계류됐다.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은 60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5분의 3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로 직회부될 수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첫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민주당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상정 안건들은 지난 2월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나 60일이 경과됐음에도 심사를 마치지 않았다"며 "이유없이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때는 심사대상법률안의 소관위원회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이의없는 경우 의장에게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이달근 의원 등 7명은 이날 입장문을 내 "민주당은 의사 일정과 안건에 대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말았다"며 "국회법을 무시한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번에 본회의 부의 요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지난해 4월 정부의 재의 요구 이후 국회에서 부결된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매수'하도록 하는 조항을 부활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남는 쌀 강제매수'는 과잉생산 유발, 쌀값 하락, 재정부담 증가 및 형평성 문제 등 농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부 뿐 아니라 많은 전문가와 농업인 단체도 큰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며 "민주당은 입법 독주를 중단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만들어갈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숙 기자 seonwook.kim@jnilbo.com

DJ 탄생 100주년 기획전 '김대중, 다시 광야에서'

광주민속박물관 8월18일까지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은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기획전시 '김대중, 다시 광야에서'를 18일 개막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전시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를 관통하고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와 닮아있는 김대중의 생애를 3부에 걸쳐 들여다본다.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에게 전하는 글, 대통령으로서 문제를 해결해갔던 면모, 6·15남북정상회담 등 관련 글과 사진 100여점의 자료를 한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

특히 내란음모사건으로 수감됐던 청주 교도소 감옥을 재현하고, 육중서신 쓰기



체험 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밖에 김대중 어록월, 노벨평화상 수상 포도존 등도 마련했다.

전시회는 제1부 '행동하는 양심'로, 제2부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제3부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 등 총 3부로 구성됐다.

이번 전시는 기획전시실에서 오는 8월 18일까지 열리며, 자세한 내용은 광주역사민속박물관 학예연구실(613-5361)로 문의하면 된다.

노병하기자

전남도, 인재육성교육국 신설 등 조직개편 추진

소멸위기 등 지역 현안 대응 초점 의대설립추진단, 정규 부서 설치

전남도가 지역소멸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청년인민국을 정규 직제화하고,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인재육성교육국을 설치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민선 8기 후반기 조직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 3월 개정·시행돼 기구 설치 자율권이 확보됨에 따라 '인구청년인민국'을 정규 직제로 반영하고, 인재 육성을 통한 미래 준비와 지역 성장을 이룰 발전전략 체계 구축을 위해 '인재육성교육국'도 함

께 신설키로 했다.

인재육성교육국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글로벌 등 지방대학 육성과 교육특구 업무가 증대됨에 따라 전담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행정국에 '희망인재육성국', '대학정책과'를 이관받아 학교교육지원, 미래 인재육성, 청소년지원, 평생교육진흥, 대학지원 등 교육 업무를 총괄토록 했다.

또 정부의 전남도 국립의대 설립 구제화에 따라 전남(TF)기구인 의대설립추진단(4급)을 인재육성교육국 정규 부서로 설치해 정부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 의대 설립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기업 수요 선제적 대응을 통한 산업용

지 적기 공급 등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효과적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서는 일자리투자유치국 투자유치과에서 산단업무를 분리해 '산단개발과'를 신설한다.

또 농어촌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등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전담 기능을 보강하고, 2025년 개관 예정인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건립기능을 확충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 의견을 거쳐 오는 5월13일 개최하는 제380회 전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사·의결 후 7월 초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곽지혜 기자



www.kdn.com

에너지로 시-라움을 밝힙니다



배려가 에너지가 될 수 있을까? 나눔이 에너지가 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사회를 향한 한전KDN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사람을 밝히는 에너지CT기술,
한전KDN이 시작합니다



요양원 헬스케어 밴드 서비스

중소기업 무료 보안컨설팅

KDN 디지털 IT용 지원

지역 관우 육성 로봇코딩실

스마트 필 운영